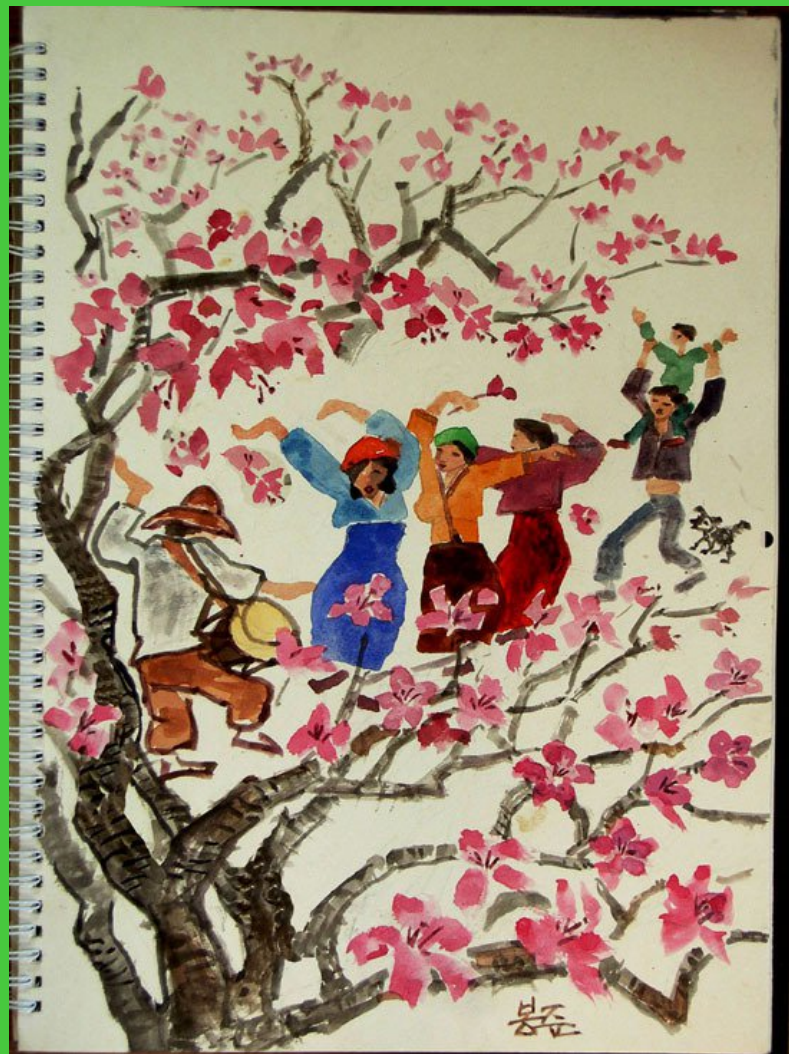




또 다른 시작

해당화

소개글

삶은 또 다른 시작으로 새롭게 창조해야 되겠지요.
첫 마음의 설레임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고 사회가 평등한 세상을 일구어 가는데,
시가 달처럼 별처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둥근 달에 그리움 하나	5
2	오동동에 가면 아구찜이 있다	7
3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9
4	죽느냐 사느냐 4대강이여	11
5	성각스님 선서화에 깃든 마음	13
6	부활의 참된 봄날이 그리워	15
7	봄산에서 나를 깨우친 것	17
8	표고버섯과 막걸리	19
9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 없다	21
10	오죽하면 갈아엎을까	23
11	시와 자작나무 북 카페에서	25
12	비내리는 쌀재고개	27
13	반격! 함께 살자! 노동절	29
14	야생화 전시장에서	31
15	봉축음악회 연 까닭은	33
16	민주당 도대체 제 정신인가	35
17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37
18	내 마음의 푸른 산	39
19	심장에 남는 사람 정광훈	41
20	저 벼랑 끝에 꽃은 피고	43
21	내게 5.18은 무엇인가	45
22	그 오두막집이 그림다	47
23	창원에서 노무현 만나다	49
24	저도 둘레길을 걸으며	51
25	다시 듣고 싶었던 시민강좌	53

26	이 땅이 뉘 땅인데 고엽제냐	56
27	내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	58
28	열두번째 새물맞이 곳에서	60
29	오동동 문화의 거리에서	62
30	다시 4대강의 생명을 위하여	64
31	광화문은 우리를 부른다	66
32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68
33	우리동네 단오제는 없나요	70
34	내가 텃밭에서 만난 것들	72
35	임항선 기차길에 깃든 추억이여	74
36	나에게 부치는 편지	76
37	함께 가자 통일의 길 6.15	78
38	휘날려라 6.9대회 깃발이여	80
39	한진,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며	82
40	임항선 기차길 옆 시장에서	84
41	왜 보랏빛 꽃인가	86
42	다시 참교육을 부르며	88
43	빗 속의 3보 1배	90
44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	92
45	때로 담배 하나도 힘이 된다	94
46	행복한 인문학 시민강좌에서	96
47	지금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다	98
48	오늘 술자리 안주 제9구단	100
49	블로그북 <또 다른 시작> 시집을 출간하면서^^	101



둥근 달에 그리움 하나

저만치 둥근 달 떴네
보름달처럼 환히
온누리를 밝히는데

봄날의 달에 반해서
카메라를 들이대

몇 번 찍어도 실패

그냥 내 마음에 두고
하염없이 보는 달
사무친 얼굴 떠올라

밤길을 거닐어 보며
못 다한 내 사랑
추억 속에 그려라



오동동에 가면 아구찜이 있다

아구는 말려야 진짜라지
겨울 덕장에 내걸고
된장을 넣어야 제 맛을
보게 된다는 이씨아저씨

6.25 때 국끓여 먹었다는
못 생긴 아구생선을

육십년대 중반에 들어
비로소 아구찜 했다는데

어머니가 국수를 팔면서
아구국 함께 끓였던
집안 이야기 들어보니
오동동 한결 정이 가네

40년도 넘은 세월 동안에
마산 자랑거리가 된
아구찜 거리는 역사고
흰머리가 외려 자랑이라

요즘 장사 죽을 맛이어도
명물 아구찜은 어데
불황을 타는가 말이야
오랜 가업이 승부수라지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꼬마거미야 안녕?

언제 거기에

둥지를 틀었니

침낭 옆 잡동사니

종이컵 속

거미줄을 쳤네

새들이 집을 짓듯
혼자 힘으로
살 곳을 꾸리고

어미없이 자라는
꼬마거미도
제 집이 있건만

집 없는 사람들이
절반이라지
평등세상 아니야

무상으로 집 장만
그런 세상이
언제고 오려마



죽느냐 사느냐 4대강이여

강의 눈물이 창원시까지
흘러 흘러서 왔다
숨죽여 흐느끼는 강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4대강 강연 노래
내 가슴을 두드렸다

아릿따운 강을 파헤쳐
아이들 놀이터도
못 생명도 다 죽이는

MB정권의 삽질 앞에서
국토는 파괴되고
추억마저 사라질 판

벌써 30명 목숨을 앗은
토건족 속도전에
강의 눈물은 슬펐다

친수법마저 통과시키니
막가파 따로 없어
이 죄업을 어찌할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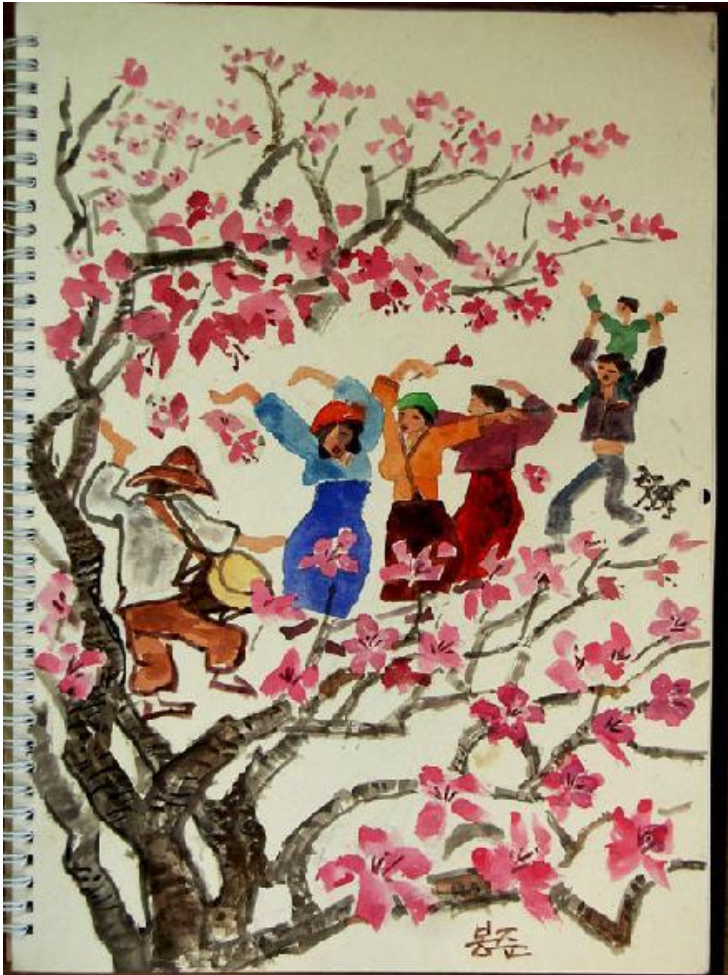
성각스님 선서화에 깃든 마음

희망연대 행사장에선가
한번 만난 적 있지
남해 망운사 성각스님

경남도민일보 칼럼에서
자주 씹게 되었는데
산사에서 깨우쳐 주는
설법이 가슴에 와 닿데

산과 더불어삶을 일구며
수묵의 세계를 그려
선서화를 선보인다니

놀랍고 반가워 늦게서야
성각스님을 떠올려
조계종 5대결사 뜻이
울림으로 메아리치는가



부활의 참된 봄날이 그리워

부활절 아침에 돌아보라

우리시대 부활은

통일의 참된 봄 아니라

하나의 겨레 둘로 갈라져

사랑 대신 증오를

총부리처럼 맞댄 세월

온누리에 평화가 넘치고

남북이 오고 가며

한반도기 휘날리는 날

겨레가 얼싸안고 춤추며

분단장벽 허물어

부활의 노래를 부르리



봄산에서 나를 깨우친 것

산은 내게 생존이다
먼 옛적부터
자연 속에 살아온
인간의 삶을 깨우치며
오르고 내려온다

숲속길을 걸으며
바위를 타며

때로 아찔한 코스에서
위험을 감지한다

진달래 꽃잎 먹고
솔잎 씹으며
갈증을 달래는 산길
오직 자신의 발로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한다

벼랑길 로프를 잡아
줄곧 올라가고
큰바위 틈새 길을 따라
가까스로 내려온다

산바람 세게 불면
모자 조여쓰고
생수병 물을 마시며
다리쉽을 하면서
산행길에서 뒤돌아본다

산과 더불어 부대끼며
먼 옛적부터
마을을 이룬 사람들
오랜 삶이 보인다



표고버섯과 막걸리

간밤에 천둥이 울고
번개 번쩍 하며
황사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해가 떴구나
산행갔다가 구한
표고버섯을 찢어서

막걸리 한두 잔 들며
아침 요기 하고
블로그 메일 신문

차례대로 열어보는
하루의 시작이
끼니처럼 되었네

인터넷이 몸에 배여
디카와 글쓰기
밥과 반찬 같구나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 없다

2011년 4.27 재보선은
야권연대의 힘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비록 김해가 패했어도
순천 울산 거제
분당 강원도에서
MB정권을 심판했다

순천에서 김선동 후보
당선된 소식은
벅찬 눈물이 흘렀다

간절히 바랬던 염원이

국민들의 열망이
총선 대선의 희망을
꽃처럼 피어올렸다



오죽하면 갈아엎을까

배추값 고추값이
폭락이란다
기름값은 뛰고

생산비도 못 건져
기른 채소들
갈아엎는 소식

예삿일이 아닌데

살농정 정부
물가 타령인가

구제역 쓰나미에
소 돼지 농민
벼랑 끝이건만

이러다 줄도산이
뻔해 대책을
내놓아야 되네



시와 자작나무 북 카페에서

마산의 시와 자작나무
북 카페에 들르면
문화가 살아 숨쉬지

금요일 밤 천상병 시인
추모 시와 노래를
들으러 걸어서 갔네

귀천 시인의 삶을 기려
찾아온 얼굴들이
봄꽃으로 피어났어

독립영화 귀천도 보고
감독과 얘기나눈
북 카페 참 고마워라

돌아가며 시낭송 하며
하동임 김산 가수
노래 다함께 불렀던

시와 자작나무의 밤은
애뜻한 사랑처럼
긴 여운을 남겼구나



비내리는 쌀재고개

오랫만에 왔다
비안개
산봉우리에 서려
아름다운 곳

바닷바람에

나무들

설레이는 고개

만날재에서

감천 넘어가는

싸리재

옛 추억이여

민들레 취나물

머위 쑥

반찬해 먹고

임마농원 텃밭에

쑥쑥 자란

소나무 보니

참 대견하여라

빛 속에서 만난

쌀재고개

늘 새롭구나



반격! 함께 살자! 노동절

보라 저 깃발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결코 내린 적 없는
단결 투쟁의
피땀은 깃발을

121주년 메이데이
사무친 꿈은
들불로 타올라

정규직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동자는 하나

창원 용지공원에서
터져오르는
분노의 외침이여

보라 저 깃발을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

노동이 아름답고
고루 잘 사는
세상을 부르네



야생화 전시장에서

작은 꽃들이 곱다
키우는 마음도

산행길에서 만난
야생화도 있고

돈보다 꽃이 좋아
전시회를 가진

초우회 사람들과

얘기 나누자니

꽃향기 넘실대는
들에 나온 듯해

팍팍한 가슴에도
작은 꽃들 핀다



봉축음악회 연 까닭은

불교행사에 몇 차례
참석하였지만
이날처럼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에서

내 가슴을 울려 주던
아리랑 가락은
우리 민족의 한을
일깨웠거늘

실로 놀라웠어라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를 지향하는
조계종 5대 결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었네

석가탄신일 즈음하여
스님 시민 다함께
봉축음악회를
떡 펼쳐 놓으니
대승의 길 아니라

서서 합장하던 이들
마음 속에 갇들인
간절한 염원이
별처럼 반짝거리던
불교행사였구나



민주당 도대체 제 정신인가

봄비 내리는 이 강산
위험에 처한 것은
방사능비 뿐 아니다

540만 자영업자들
300만 농민들이
죽어나게 생겼다

민주당의 배신으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한-EU FTA 국제법이
유통법 상생법을
무상급식을 뒤엎었다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유린당한 국회를
눈뜨고 볼 수 없다

방사능비 쏟아지고
한-EU FTA 덮쳐
이제 악만 남았다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저 텃밭 고들빼기
머구 돌나물
사라지기 전에

봄날이 가기 전에
못 다한 일들
챙겨야 할 때다

지난 달은 아파서
몸살림 책도
읽곤 하였지만

블로그에 꼭 빠져
밤샘을 해도
하루 노동해야지

땀흘려 일하는 날
시는 샘솟고
내 가슴은 뛰네



내 마음의 푸른 산

간밤의 비 갠 후

서원곡에서

마주친

정든 산빛이여

못 잊을

어머니의 얼굴처럼

포근히 안겨라

늘 대하는 무학산
5월광주 직후
돌아온
나를 반겨주었지

사월 초파일날
절집도
찾아가지 못했지만

산중도량 품어 준
고향의 산
그리운
내 사랑이어라



심장에 남는 사람 정광훈

북극성처럼
방향을 가리키던
시대의 큰별이
지던 날

타는 들녘은
온밤내
통곡하였다

민중의 참된 벗이자
지도자였던
정광훈 의장님을
목놓아 부르며

농민을 노동자를
제 몸보다
아꼈던 혁명가

늘 선봉에 서서
힘찬 연설로
강연으로
희망을 불어넣었던

진보의 큰별이
지던 날
산천은 흐느꼈다



저 벼랑 끝에 꽃은 피고

바위벼랑에 걸린
철사다리를
오르다
만난 철쭉꽃

호젓한 산행길에서
방긋 웃으며
반겨맞는 내 사랑

신록의 푸른 숲
마다하고
왜 하필
낭떠러지인가

아찔한 삶들을
온몸으로
말해 주는 듯

우리끼리 힘모아
같이 살자
외치는 오월꽃
잊지 못해라



내게 5.18은 무엇인가

그해 오월 이후

어느덧

31년 세월

항쟁의 거리에서

살아남아

해직되었지

빛고을 꽃넋들

뜻을 이어

한길로 가며

갈아엮자는

외침을

받아안고

삶의 시를 쓰고

사진 찍어

블로그 하지

못다 한 오월을

끝까지

지켜가야지



그 오두막집이 그림다

약을 달고 산다
중이염 땀에
진통제를
목감기 기침 땀에
소염제를 먹고

등산을 갔다 오면
다리아 모여도
피곤하던
몸도 살아났는데

밤샘 작업에
거르는 끼니에
면역력이
뚝 떨어져 그런가

병원에는 좀체

가질 않고
자가처방을 하며
낮곤 했지만

올봄 들어서
이상스레
약을 달고 산다
술담배 끊지 못한
몸의 신호인가



창원에서 노무현 만나다

노무현 2주기 창원은
빗속에서 열린
이맘때만큼 왔구나

자전거를 탄 풍경에
눈물로 흘려쓴
오월은 노무현입니다
행사 팸플릿 들고

그가 못다 이룬 꿈을

사람사는 세상을
못내 그리워하면서

노란 깃발 풍선 옷
다음아고라
그의 평생 동지들
노동자 시민들까지

오늘은 봉하마을
부엉이가 되어
민주 통일을 외쳐라

다함께 노래불렀던
피플 파워처럼
세상을 바꾸어라
이제 슬픔은 그만



저도 둘레길을 걸으며

구산면 저도에
둘레길이
다 생겼구나
모처럼
가뻘하여라

싱그러운 바닷가

섬을 빙 둘러
천천히
홀로 여럿이
걸어가는 이 길

푸른 물결 치는
저 바다에
남모를
아픔 스몄건만
뉘라서 알라

고깃배도
어장도
작은 논밭도
옛 추억을
다시 부르는가

세월의 흔적은
파도처럼
부딪쳐 부서지고
못 다한 사랑
회한에 젖노라



다시 듣고 싶었던 시민강좌

참 오랫동안 열렸구나
민교협 시민강좌
하 수상한 시절이면
교수들이 무료강연을
대학 밖에서 펼쳤지

예전엔 가톨릭여성회관
오늘은 합포도서관

시민 학생 눈빛들은
행복한 인문학 교실에서
반짝거리며 타올랐네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토론한
김재현 교수의 행복 강의
흥미롭게 풀어나가며
더불어 고민하게 됐어

철학보따리를 풀어헤쳐
이러쿵 저러쿵 하니
가슴 속 묻어둔 사연도
홀로 겪는 일 아니고
우리시대 아픔들이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경남대 민교협이여
첫 마음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온 기쁨을
여럿이 나누고 싶어라



이 땅이 뉘 땅인데 고엽제나

주한 미군기지 곳곳에
고엽제가 묻혔단다
죽음의 다이옥신
제초제가 셀 수 없이

암 발병으로 주민들이
죽어나가고 병들어
식수도 농작물도 다
위험하게 생겼다지

월남전때 뿌린 고엽제
지금 참전용사들
후유증에 고통받는
소식 남의 일 아닐세

불평등 SOFA협정으로

알 권리도 환경권도
깡그리 앓겨 버린 채
우리 땅은 오염되었네

한국인이여 분노하라고
진실을 밝힌 미군이
오죽하면 그리 말할까
외쳐라 양키 고 흠을



내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

권환문학제에 가봤더니
다큐영화 상영되고
시인 초청강좌도 있네

문학에 목말랐던 내게
참 반가운 행사라
시와 자작나무에서
그날은 행복하였다네

카프문학은 옛 것이고
손택수 시인 시는
동시대를 노래하지

실천문학 대표를 맡은
그의 시의 내력을
듣자니 좀 아쉬웠어
25시같은 막장시대에

껍질을 깨는 아픔으로
한 줄씩 써내려간
식구를 읽으면서도

시여 무기여 부르짖던
시인들이 그리워
남몰래 아파했지만
문학담론은 소중했네



열두번째 새물맞이 곳에서

마산은 항구도시다
철썩 처얼썩
파도가 밀려오고

선창가에 서면
뱃고동 소리 들리고
갈매기떼 날으던

내 고향 가고파
푸른 바다 옛 추억이
새록새록 숨넒다

수출자유지역 들어서
오염이 시작된
그날 이후 바다는

시름시름 앓더니
꺼멓게 변해
속절없이 죽어갔다

잇따른 매립으로
마산만은
더욱 좁아졌다

30년 후 더 늦기 전에
바다를 살리자고
민관이 나섰다

그때로부터 해마다
새물맞이 곳
한마당을 펼쳤다

오늘은 오동동 거리
시민문화제를
풍물패와 함께 열었다

한을 푸는 판소리로
간절한 춤으로
생명굿을 바쳤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마산만협의회
민예총 힘을 모아

부디 새 물을 모시자
한뜻으로 기원하며
대동굿을 벌였다



오동동 문화의 거리에서

3일간의 전시회가
막을 내렸다
이강용 그림전

30년 전에 그렸던
해골그림이
다시 살아났다

성주사 칩거시절

그가 깨우친
참선 작품들도

민주주의 전당은
먼 훗날의 일
오동동 거리에

내걸린 미술작품
오다가다 보는
기쁨이 더 좋다



다시 4대강의 생명을 위하여

문수스님 1주기 추모제
행사가 창원에서
강의 눈물 팀과 함께
숙연히 치뤄졌습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온몸으로 외친
한 스님의 소신공양
그 뜻을 기리며

눈시울 뜨거웠습니다

무리한 공사로 노동자가
잇따라 죽어가고
아름답던 강이
흑탕물로 변했습니다

강변에 살고 싶다고
노래하던 추억도
물고기도 새도
우리 곁을 떠나는
죽음의 강이 됐습니다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4대강이 물고울
재앙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쌓은 보는 무너지고
홍수에 잠긴 마을들이
내 눈 앞에 어려
삼질을 당장 멈춰라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문수스님 1주기 추모제
시와 노래 검무를
합장하며 바쳤습니다
강의 눈물은 계속됩니다



광화문은 우리를 부른다

광화문에 가 보았나
축제를 펼치듯
아릿따운 촛불들
시대의 햇불로
타오르는 광장이여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300만 대학생
모두 모여라고

대학생들 시민들이
한데 어울려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외치고 노래하며

환호하는구나

음료수 피자 치킨

응원물품도

30대 선배층도

김제동 김여진도

연행당하는 학생들

모습이 가슴아파

닭튀김이라도

나눠먹고 함께 했으면

한다는 시민들도

눈시울이 뜨겁도록

고마운 원군들

모두 촛불이 되어

광화문을 지켜라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지금은 새벽 4시
자정까지
등록금 낮춰라
요구한 광화문 촛불

종로 거리로
명동성당으로
진출한 학생들
뉴스 속보를 읽다

발톱을 드러낸 경찰
또 다시
폭력연행으로
부상자 속출하고

끌려가면서도

온몸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

구호를 외치는

젊은 그들은

독재를 갈아엎은

6월항쟁

투쟁의 불씨다

청소년도 노동자도

다함께 나서

활활 타올랐던

MB 심판 촛불은

마침내 광화문에서

부산 대구

지방으로 번져

누리에 불이 붙다

어찌 등록금뿐이라

쌓이고 쌓였던

성난 민심이

폭발한 정권말기

촛불의 분노는

폭력 앞에

꺼지지 않고

될 때까지 모인다



우리동네 단오제는 없나요

오늘이 단오절이구나
행사라도 있으면
카메라 들고 가 보련만
이곳에는 볼 수 없네

조상들의 세시풍속이야
남과 북이 하나라
창포물에 머리감고
민속놀이를 즐기던 날

단오굿판도 탈놀이도
그네뛰기 씨름도
내 사는 고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여라

한데 어울려 놀이하며
마을공동체 이뤘을
4대 명절 단오날
뜻이라도 돌아봐야지



내가 텃밭에서 만난 것들

이른 아침 그곳에는
꽃들도 곱지만
상추 고들빼기 취나물
찬거리가 넘쳐난다

씨앗을 뿌리면 어느새
싹이 트고 자라
길러먹는 남새들
절로 입맛이 동한다

애써 심지 않아도
질경이 돌나물
머구 범의귀 민들레
텃밭 가득 자랐다

이름모를 야생화도
풀씨가 날라와
여기저기 피어나
작은 꽃밭을 이루었다

동네 빈터를 일궈서
먹거리를 키워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그 손길이 고맙다



임항선 기차길에 깃든 추억이여

임항선 그린웨이가 인기다
녹슨 폐선로 그 자리에
걷기 좋은 숲길이 생기니

신마산 바닷가 옆길을 따라
동네사람들 밤중에도
아이와 함께 산책하구나

무학산 합포만 중간지점에

자리잡은 추억의 길은
마산인에게 사연도 많지

3.15의거 부마항쟁 6월항쟁
민주주의의 혼이 서려
내 고장 역사가 숨쉬거늘

기적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기찻길에 흘러간 세월
내 오늘에서 돌아보아라



나에게 부치는 편지

내 가슴에 불길은
아직도 타는가
6월항쟁 혼불이

강산이 두 번 바뀌고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노무현도
가고 없는 지금

누군가 말했지
현재진행형이라고
갈 길은 멀다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웠던
그때 그 시절
내 다시 돌아가리

6월항쟁 24주년을
함께 맞으며
거리로 나서라



함께 가자 통일의 길 6.15

6.15 선언 11주년 기념

창원 시민달리기

대회가 열린 날

만남의 광장에서는

학생도 노동자도

부모 아이도

장애인도 함께

통일의 염원을 안고
땀흘리며 달렸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통일퍼즐도
통일엽서 쓰기도
말아서 안내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6.15 남북공동선언
세대를 뛰어넘어
온누리를 빛내 간다

한줌 냉전의 무리들
햇볕정책을
한반도 평화를
어찌 막을 수 있으랴

아름나라 어린이들이
평화의 나라를
노래부르던 그날
통일은 뻤어!
감탄이 절로 터졌다



휘날려라 6.9대회 깃발이여

창원 6.9대회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무엇을 느꼈던가

오직 국민의 공무원
뼈아픈 외침이
내 가슴을 울렸다

굴종의 사슬을 끊고
참공무원으로
살고자 뭇친 90만

공무원노조 동지들
맺히고 쌓였던
노동자의 분노가

북을 치고 노래하고
춤추는 몸짓들
하나마다 사무쳤다

함께 힘모아 전진할
내일을 위하여
깃발들은 휘날렸다



한진,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며

한진사태 알자지라에 뒀다

트위터 물결을 타고

전 세계 외신에 알려졌다

내일 새벽쯤 공권력 투입이

된다면 그땐 늦었지

뒷북치는 한국 언론이여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위

160여일째 고공농성

김진숙 동지가 위험하다

희망버스가 다녀간 뒤부터
음식물 반입도 막은
사측에 맞선 한진노동자

무기한 단식농성을 펼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
속속 집결한 영도조선소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아
정리해고를 강행한
먹튀자본 한진이 끝끝내

대화를 팽개치고 경찰력을
들이민다면 파국뿐
노동자의 분노는 터진다



임항선 기차길 옆 시장에서

떠 일정이 없는 일요일
회산다리로 나가
옛 북마산 철길시장을
홀가분하게 걸었네

폐선로가 된 임항선에
기차는 끊어졌어도
철로 옆 난장에는

추억의 물건들 놓여

뽕튀기 소리도 들리고

생선 고추 찌짐

옷가지 신발 통닭

떡 반찬 꽃 다 있지

서민살이 애환이 깃든

허름한 재래시장

참 많이도 걸어다닌

동네길은 변함없어라



왜 보랏빛 꽃인가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산에 들에 길에
피어난
저 제비꽃

지난 날
고난을 이기고
어엿하게
꽃을 피워
우릴 부르나

눈물 삼킨
아픔을 딛고

새날을
여는 시인처럼
벗들과 함께

발길 닿는 곳
어디서나
노래부르듯
희망을
안겨주는 꽃이여

예전에
미처 몰랐던
보랏빛 꽃
아프지 말아라
안부전하네



다시 참교육을 부르며

학교야 뭐 하니
행복해?
묻는다면
글쎄

오직 공부
성적순
미친 교육이라고
대답을 할까

꼴찌도
행복한 세상은
과연
불가능한 꿈일까

평준화를 버리고

그 누가
일제고사를
강행하려는가

차등성과급 제도는
또 어떻게
갈등만 조장하는
교사 서열화네

경남 524개교 교사
1만명 넘게
MB 교육과정을
바꾸라 외쳤다지

경쟁만이
존재의 가치라면
희망이 없다!
딱 맞는 말이야



빛 속의 3보 1배

징을 쳐라
최저임금 5410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하여

징을 쳐라
이명박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징을 쳐라
청와대 가는 길
가로막아도
될 때까지

징을 쳐라

매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
모두 모여라고

징을 쳐라
간절히
노동자 대학생
소망 이를 때까지

징을 쳐라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 없다
제발 함께 살자고

징을 쳐라
고통받는 서민들
희망을 안고
3보 1배는 간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

낙동강 4대강 공사구간

처참하게 무너진

100년 넘는 왜관철교

어찌 이뿐이겠는가

미친 삽질에 노동자도

아름답던 강들도

사라져 가는 슬픈 땅

장마비 태풍에 속출할

자연의 재앙은

이미 시작됐거늘

막기에는 늦은 걸까

댐도 물막이도 강변도
준설토도 모조리
휩쓸고 가 버릴텐데

정작 무너져 내린 것은
국민의 가슴이고
강변 살자 그리던
고향산천 풍경들이지



때로 담배 하나도 힘이 된다

누구는 담배 좀 끊지
내게 권하지만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 지 너무나 오래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시를 쓰다 꺼내 문
하늘색 디스 한 개비

돌아보면 청년시절부터
줄곧 한몸이 된
연인이자 벗이기도
그래 헤어질 수 없네

그리운 스토키 이웃도
그만 좀 피세요
재촉하는 애달픈 날

오죽하면 담배를 놓고

한 편 시까지 쓰랴
몸살림이야 등산으로
때우면 되지 않겠나



행복한 인문학 시민강좌에서

인문학이 길을 나섰다
폐과될 위기까지
내몰렸던 철학강좌도

해묵은 책들을 읽듯이
행복 자유 담론을
여럿이 함께 들었다

경남대 민주화교수협

교수들이 힘 모아
열린 캠퍼스 밖 강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고
자유인 것을 깨친
더 없이 소중한 시간

오로지 경쟁 돈만 아는
비뚤어진 세상에서
원효의 마음을 만났다



지금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다

애초에 조중동 방송이란
권력 시나리오였잖아
국민의 알 권리를
뺏는 가증스런 술수야

재벌기업의 방송 참여도
종편 특혜 몰아주기도
지역 MBC 광역화도
다 독재 연장 음모이지

보도지침을 작성해 놓고
진실을 은폐시켰던
전두환때 일이 생각나
이제 또 다시 악몽인가

조중동 퇴출 무한행동이
언론단체들과 함께

사회정의를 지키려고
떨쳐 일어선 비상시국

지역 신문 방송들도 나서
조중동 방송 광고
직거래를 막기 위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네



오늘 술자리 안주 제9구단

프로야구 9구단 유치
누가 반대하랴만
독선행정이 문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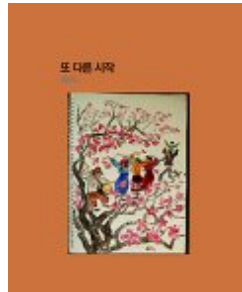
창원시의회 심의조차
반대의견 수렴도
싹 무시하는 단체장

제9구단 프로야구단
우리 고향에 오면
팬들도 좋아하리만

야당 시의원 문제제기
일리가 있는데도
왜 바빠 밀어부쳤나

새 야구장 지을 돈이
시민 세금일진대
불평등협약 통과라

창단 과정 화합 하나
제대로 못 이루고
통합시 시장 맞는가



블로그북 <또 다른 시작> 전자책 시집 후기^^

지금 내게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건만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그만큼 또 다른 시작이 쉽지 않다. 늦봄에서 초여름까지 살아가며 시를 쓰다 보니 어느새 100P 분량이 돼 버렸다. 블로그북 전자책 시집은 많은 분량보다 읽기 적절한 편이 낫다. 그래서 2번째 블로그북 시집 <또 다른 시작>을 출간한다. 원고료를 주는 곳은 없지만 시를 죽 쓰다 보면 이게 나에게 삶의 활력소가 된다. 그동안 댓글을 달고 느낌을 올려준 블로그 이웃들에게 감사드린다.

요즘 인문학이 부활하고 인간과 사회 본연의 삶을 짚어보는 시민들이 많아져 기분이 좋다. 마찬가지로 문학의 부활도 이루어져야 경쟁, 물신 위주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시인도 생활과 동시대를 함께 형상화하는 문학인의 자세를 요구받고 있다. 노동자 서민 대중의 피폐한 삶과 사회개혁 투쟁이 민족민중문학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민중이 있고 부르는 곳이면 언제나 달려가 동고동락할 때 참된 시 한 편이 소통되고 공유될 수 있다고 본다.

지역과 전국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의 위력에 힘입은 바 크다. 내가 몸 담은 마산창원 지역이야 맨날 다니는 곳이지만 전국을 다니기는 어렵다. 척박한 시대 한 개인의 내면과 외면을 시어로 형상화해 한 편의 시작품을 써 내는 일도 노동이다. 비록 댓가는 전혀 없고 경비만 깨지지만 문예를 통한 사회참여 방식이다. 다행스럽게 블로그가 있고 또 블로그북이 있어 평소에 정리해 두고 여럿이 열어보게 되니 얻는 바가 적지 않다.

여기 블로그북 시집 <또 다른 시작>에 담긴 시편들은 나 개인의 내면은 물론 당대의 화두인 4대강, 한진사태, 농산물값 폭락, 반값등록금, 전쟁보다 평화, 통일, MB 언론장악, 창원시의회, 야권연대, 진보정치, 도시농업 텃밭, 산행 추억 등등 다양한 일상을 형상화하려고 노력했다. 프리랜서 자유직종인 시인은 얼마이는 바가 없어 쓴소리도 내 맘대로 하고 변혁운동에 뛰어들 수 있다. "시여 무기여!" 라고 김남주 시인이 노래한 적이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노동이 아름답게, 사회가 평등하게, 남북이 하나되게 하는 그날까지 시는 세상을 바꾸는 무기이다.

2011년 7월, 무학산 자락에서, 저자

또 다른 시작

블로그 자신을 돌아보라 <http://blog.daum.net/youpoet>

저자 해당화

발행일 2011.04.27 08:40:54

 블로그